

# 빙하서 온몸 골절에도 소변 마시며 생존

## 미국 언론인 나홀로 배낭여행 떠났다 극적 구조

미국 언론인 알렉 루언이 노르웨이 빙하에서 여섯 날 동안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물도 없이 생존한 극적인 경험을 공개했다.

루언은 기후 전문 기자로, 8월 초 홀로 배낭여행을 떠나 노르웨이 쾰게폰나 국립공원의 빙하를 탐험하던 중 실종됐다. 8월 5일 돌아오기로 한 런던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걸 알게 된 아내가 실종 신고를 했고, 이튿날인 6일 수색 구조팀이 루언을 발견해 베르겐 병원으로 이송했다.



▲ 알렉 루언 사진=SNS

질했다. 빗방울 하나하나를 혀로 핥아 먹었다" 고 회상했다.

날씨 악화는 구조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다. 강풍과 폭우, 영하에 가까운 기온이 이어졌지만, 여섯째 날 마침내 구조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다. 루언은 헬기가 자신을 지나치는 것을 보자 텐트 폴대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며 위치를 알렸다. 그는 "마침내 헬기 문이 열리고 구조대원이 손을 흔들어 주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고 말했다.

베르겐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루언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여행이 어떻게 생존 부재로 바뀌었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부아르브레엔 빙하 인근 산에서 등산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파른 경사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바위에 부딪혀 대퇴골이 부러지고 골반과 척추에 골절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루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구조가 오기까지 최소 4일은 버텨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숙련된 하이커였던 그는 텐트와 침낭으로 몸을 보호했지만, 추락 과정에서 음식, 물, 휴대전화는 모두 잃어버렸다.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변을 마셨고, 사흘째 날씨가 변하면서 빗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는 "정말 물이 간

루언의 아내는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대퇴골과 골반 골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루언은 현재 런던에 거주하며 내셔널지오그래픽, 뉴 사이언티스트, 가디언, 뉴욕타임스, BBC, 애플리케이션 등 유력 매체에 기고해왔다. 지난해에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카블리 과학저널리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쾰게폰나 국립공원은 노르웨이 본토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가 자리한 지역으로, 위험한 지형과 급변하는 기후로 유명하다. 이번 사건은 자연 환경 속에서의 탐험과 생존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물 속 숨 안 쉬기 29분 3초

## 다이버 '돌고래 2배' 신기록



▲ 비토미르 마리치치 사진=SNS

지난 6월 14일, 크로아티아의 프리다이버 비토미르 마리치치는 물 속에서 무려 29분 3초 동안 숨을 참아 자발적 무호흡 신기록을 세웠다. 기존 기록을 약 5분 가까이 앞질렀다. 숨을 쉬지 않고 30분 가까이 버틴다는 건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돌고래가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의 두 배에 가깝고, 바다표범과 맞먹는 수준이다. 바다표범은 한 번의 호흡으로 폐 속 공기의 90%를 교체할 수 있지만, 인간은 20%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간은 더 많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채워야 한다.

마리치치는 도전에 앞서 10분 동안 순수 산소를 흡입해 혈장에 녹아드는 산소량을 극대화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도전 당시 내 몸에는 평소보다 5배 가까운 산소가 저장돼 있었다" 며,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기록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기를 마신 상태에서도 그의 실력은 눈에 띈다. 마리치치는 최대 10분 8초까지 숨을 참을 수 있으며, 이는 평범한 사람의 평균 무호흡 시간(30~90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재 일반 공기를 마신 상태에서의 최장 기록은 2014년 세르비아의 브란코 페트로비치가 세운 11분 35초다.

마리치치는 이번 기록을 통해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기네스 공식 웹사이트는 전했다. 여러 차례 관련 세계 기록을 세운 그는 앞으로 페트로비치의 기록에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 해파리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일시 중단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인근 그라블린 원자력발전소가 해파리 대량 유입으로 가동을 일시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럽 최대 규모인 그라블린 원전은 900메가와트급 원자로 6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기는 최근 해파리 떼가 냉각수 펌프를 막으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 프랑스 북부 그라블린 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안에서 해파리떼가 떠밀려온 모습, 사진=AFP/뉴스1

그라블린 원전은 1990년대에도 해파리로 인한 가동 차질을 겪은 바 있으며, 미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도 과거 해파리

리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어류 남획, 플라스틱 오염, 기후 변화가 해파리의 서식과 번식을 돕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한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6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1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총 57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 3~4학년 권장)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운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Lampson Ave	
Brookhurst St	Yoon Chiropractic	Euclid
	Garden Grove St	
	22 Fwy	